

# 명품 아니면 1000원 생필품... 유통가 'K자형 소비' 고착화

데이터처 '3월 소매판매액통계'  
음식료품·비내구재 판매 줄어

백화점, 외국인 겨냥 콘텐츠 강화  
마트, 고물가 대응 가성비 시리즈  
편의점, 캐릭터IP·팬덤 문화 결합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 지표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실제 소비 흐름은 백화점·온라인·편의점 등 특정 채널로 집중되고, 대형마트와 생활밀착형 유통 채널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K자형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1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소매판매액통계'상 지난달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59조 17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했다. 외형적 성장과 달리 민생 경제의 가능자인 음식료품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으며,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 비내구재 판매도 전월 대비 1.3% 하락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이 필수적인 먹거리 지출마저 줄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소매 시장은 사치재 채널의 성장성은 견고해지는 반면 필수소비재는 오히려 하락하는 전형적인 'K자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필수소비재는 경기 민감도가 낮다는 인식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 채널별 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고가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206만 명으로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패션, 잡화, 해외 유명 브랜드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매

출이 전년 대비 14.7% 급증했다. 또 편의성 앞세운 온라인 매출이 8.1% 상승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고, 온라인 유통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60.6%까지 치솟았다. 편의점 업계 매출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며 2025년 7월 이래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주요 유통업계 매출 중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세 번째로 높다.

반면 서민들의 주요 장보기 공간인 대형마트는 판매액이 11.9% 급감하고 불변지수 또한 12.5%나 하락하며 전체 업체 중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채널별 격차가 벌어지자 각 업계는 타겟 고객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 1분기 호실적을 거둔 백화점 업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더 헤리티지'와 연계한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롯데백화점은 본점에서 '2026 롯데타운 명동 페스티벌'을 열고 K-방탈출 게임을 접목해 본점을 글로벌 K-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통합 멤버십 'H포인트 글로벌'의 데이터와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활용해 외국인 맞춤형 마케팅과 차별화된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마트 업계는 고물가 시대에 대응한 초저가 전략과 단독 상품 출시로 장바구니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마트는 990원 초저가 막걸리를 출시하고 5980원의 반전가격 불고기 샌드위치 등 가성비를 극대화한 델리 시리즈를 선보여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롯데마트 역시 2500원짜리 초저가 '오늘 좋은 숨결통식빵'을 출시해 4주만에 15만 개를 판매하며 식사빵 매출을 전년 대비 50%나 끌어올렸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

형마트 최초로 '태국산 신선란' 4만 6000여 판을 들여와 완판시켰으며, 이어 '미국산 백색 신선란'을 추가 판매하며 계란값 안정을 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캐릭터 지적재산권(IP)과 팬덤 문화를 결합한 콘텐츠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CU는 포켓몬, 산리오 등 캐릭터 협업 완구 매출이 전년 대비 75.1%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구매층인 MZ세대의 팬덤 소비를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GS25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암막 우양산을 전략 상품으로 육성해 매출을 전년 대비 35.1%나 끌어올렸다. 이마트24는 아이돌 그룹 '싸이커스'의 음반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등 K-팝 팬덤의 접점을 활용해 점포 방문 수요를 확대하며 오프라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사업자별로 10% 중반에서 20% 중반 수준까지 확대되며 차별화된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낮은 한 자릿수(LSD)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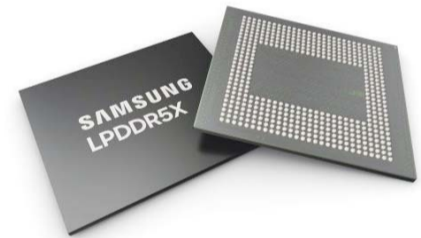
metro

## 中, HBM 틈새 노려 D램 시장 침투... 삼성·SK, 기술 방어전

YMTC·CXMT, 가파른 성장세 보여  
범용 서버·PC 시장 경쟁력 확보  
삼성·SK, 차세대 D램 공전 전환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고수의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DDR5 기반 제품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비워진 범용 D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빅2는 차세대 D램 개발과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앞세워 기술 초격차 방어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가 AI 수요 폭증과 공급부족을 기회 삼아 D램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CXMT는 중국에서 유일



삼성전자 LPDDR5X.

/삼성전자

하게 DDR5 규격의 D램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관련 제품을 정식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5% 수준까지 기

록했다고 밝혔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D램 시장 특유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공급수요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할 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강자와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CXMT는 지난해 1~3분기 매출액 320억 8000만위안(약 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7.8% 성장했다. CXMT가 공식 출시한 DDR5 포트폴리오는 최대 8000Mbps 속도와 16Gb·24Gb 밀도를 지원한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32Gb 제품과는

한 세대 정도 기술 격차가 존재하나 범용 서버와 PC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준의 수율과 제품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첨단 공정 기술과 대규모 양산 경험, 글로벌 고객사 인증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며 기술 초격차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나노급 6세대(1c) 미세공정을 적용한 FOA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 3월 같은 공정 기반의 16Gb 저전력 D램 개발을 완료했다.

차세대 D램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설비 투자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핵심 기지인 평택 P4 공장의 D램 투자 일정을 앞당기며 장비 반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올해 상반기 페이즈3(Ph3) 라인에 이어 하반기에는 Ph4라인까지 전공정 장비 셋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M15X와 용인 Y1 랩 투자를 가속하며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내년 D램 관련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D램 시장은 결국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라며 "중국 업체들의 DDR5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글로벌 PC 업체들과 공급 테스트가 본격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북미 전력망 슈퍼사이클...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 수주 경쟁

양 사, 수주잔고·신규수주 확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 초고압 전력기기 시장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 변압기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능력과 납기 대응력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약 5년치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도 장기 물량 확보가 이어지고 있다. 수주잔고와 신규수주 모두 북미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17억 9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주잔고는 78억 8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북미 물량은 54억 5600만달러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했다. 효성중공업도 올해 1분기 신규 수주가 4조 1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8%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의 약 77%가 북미향 물량이었다.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투자 확대, 노후 송전망 교체가 동시에 늘면서 일부 초고압 변압기 납기가 3~5년에 달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알라바마 생산법인과 애틀랜타 판매법인을 기반으로 북미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

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송배전 전시회 'IEEE PEST&D 2026' 기간에는 미국 중부 지역 전력회사와 173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지역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멤피스 공장에는 4900만달러를 투자해 2026년까지 시험·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추가로 1억 5700만달러를 투입해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50% 이상 확대하는 3차 증설도 추진 중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신용융자 36.4조... 하락장 대비 움직임

>> 1면 '8000 찍은 코스피에...'서 계속

하락장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잔고는 36조 4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공개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대 잔액도 170조 2727억 원에 달한다. 하락장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외국인이 언제까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갈지도 변수다. 최근 7거래일 순매도 규모는 30조 원이 넘는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다. 7~15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27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도 중요한 변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8일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증시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성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